

위반행위를 통해 본 재래시장 건축의 공간형성에 관한 연구

- 남대문시장의 현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patial Formation of Conventional Market through its violation

- Focused on the present condition of Nam-dae-mun market -

송지은* / Song, Ji-Eun
김광수** / Kim, Kwang-So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nding the spatial character for autogenous space design through the violation of Nam-dae-mun market. The violation is defined as the possession of space in excess of one's property. In Nam-dae-mun market, the violation is sanctioned by usage. Through the violation, Nam-dae-mun market naturally acquires autogenous energy and pliability.

According to three steps, this research proceed. 1. To investigate the limitation of modern architecture and the meaning of the violation. 2. To research the present condition of Nam-dae-mun market and the process of spatial formation. 3. To compare 'F' building in Nam-dae-mun with Sam-ik fashion building which was redeveloped.

키워드 : 재래시장, 자생력, 위반행위, 유동적 공간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자생력 있는 건축공간이 도시 속에서 어떻게 조성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하였다. 무미건조한 서울의 도시환경에서 남대문 재래시장은 유기체와 같은 생명력을 지닌 공간이다. 이 남대문 재래시장 내의 건축공간을 탐구해 봄으로써, 도시 내 건축이 자생력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남대문 재래시장의 건축공간이 시간대마다 변형, 점유, 확장, 가설, 해체 등을 통해 끊임없이 자생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위반행위들이 허용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위반행위는 자기소유 이외의 공간과 영역을 점유, 사유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재래시장의 도로는 시간대마다 다른 노점점포들에 의해 점거되고, 건물에서 쏟아내는 진열상품을 수용한다. 시장의 건물은 형성과정 자체가 위반행위로 인한 공간의 점유에서 시작 되었으며, 이로 인해 시장의 건물은 계획되어 지어진 근대적인 상업시설과는 다른 유동적인 공간구조와 특색 있는 공간을 형성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반행위로 인해 시장공간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또한 자생력과 유동성을 획득하고 있는 건축공간의 특성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현 도시가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의 유동적이고 자생적인 공간, 남대문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찾아보고자 하였다. 남대문 재래시장도 현재 유통시장 전면개방, 시설의 노후 등으로 점차 근대화된 상업시설로 재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선부른 전면철거에 의한 재개발은 재래시장만의 고유한 자생력과 활기를 상실시키고, 오히려 남대문의 침체를 낳을 수 있다. 재개발 이전에 남대문시장만의 자생력의 동인과 이에 따른 공간적 특성을 찾아보아야 한다.

연구의 방법은 우선 근대 건축공간이 자생력과 다양함을 상실한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고자 한다. 근대건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동인이 위반행위라고 보고, 위반행위의 중요성을 남대문시장의 현황과 관련문헌을 통해 살펴본

* 정회원,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석사과정

** 정회원,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1)재래시장은 로버트 벤츄리(Robert Venturi)가 그의 저서 <건축의 복잡성과 대립성>(1966년)에서 언급한 '복잡한 전체'(difficult whole)가 구현된 유동적인 도시공간이다.

다. 둘째, 시각관계자와의 인터뷰와 관련문헌을 통해 자생적인 공간형성과정을 조사하고, 또한 시장의 24시간 변하는 공간점유 현황을 리서치 하여 위반행위적인 공간특성을 찾아본다. 셋째 현황을 통해 위반행위의 전개양상을 도출하고, 남대문시장 F동 상가와 재개발된 삼익패션타운 상가를 현황분석과 건축도면을 통해 차이점을 비교한다. 이를 통해 위반행위를 수용하는 자생적인 시장건축의 특성을 도출하여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 본다.

2. 현대도시에서 위반행위의 의의

2.1. 근대적 도시건축의 한계

일제 강점기에 강제적인 도시의 개조와 재편과정을 겪으며 현대화되기 시작한 서울은 1960년대 국가주도의 경제개발계획 이후 40여 년간 급격하게 도시화 되면서 무미건조하고 획일적인 도시공간이 되었다. 수도로서 600여년 역사를 지닌 서울은 근대화를 통한 ‘압축된 역사와 농축된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이로 인해 서울은 전근대적인 도시구조, 산업사회, 후기산업사회적인 도시구조들이 공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근대건축을 통한 도시화는 도시환경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합리주의와 이성주의, 기능주의에 입각한 이상적인 근대건축이 오늘날과 같이 삭막하고 무개성적인 환경을 조성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위반행위에 대한 언급에 앞서 우선 현 근대건축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근대건축은 다양성을 배제하고 보편적, 객관적인 질서와 원칙을 따르고 있다. 무수한 가능성을 가진 전체를 이상적인 하나의 법칙으로 아우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부작용은 근대 도시개발, 계획에서도 나타난다. 능력 있는 소수에 의해 단일 시스템 상에서 빈틈없이 계획된 도시는 당초의 계획에서 상정되지 않은 사항을 유연하게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미건조하고 획일적인 환경을 낳게 되었다.²⁾

둘째, 근대건축⁴⁾은 장소의 기억과 시간성을 무시한다. 객관적 질서를 통해 진보를 실현하는 동시에 ‘역사의 연속성’, 즉 이전 시간의 흔적들을 지워버린다. 근대건축의 근간이 되는 데카르트 식의 합리주의에서 보면 자연적인 상태는 극복해야 할

대상, 타자성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원형의 것들은 새로운 질서 아래 훼손되고 사라진다. 이에 반해 콜린 로우(Colin Rowe)는 옛 건축과 새 건축이 공존하는 ‘폴라주 어프로치’가 새로운 질서와 전통을 모두 성립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도시는 ‘절대성과 전통의 가치에 대한 각각 다른 해석들’이 구현되어 집합된 것이기 때문에 폴라주는 모두의 자주성을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한다.⁵⁾ 즉 전통과 새로운 가치의 병존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고, 도시는 아이덴티티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근대건축계획 자체가 변질되어 인간의 삶을 조종하는 수단으로 쓰이게 되면 건축 환경은 비인간화⁶⁾된다. 이윤동기, 물질주의, 기능주의 등이 지배적인 원리로 작용하면 경제적인 것 외의 사항-역사, 문화, 사회, 환경, 개인의 감성, 쾌적성 등-들은 무시되고,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명제 하에 획일적인 공간이 생산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근대적인 계획수법에 따라 조성된 건축은 다른 체계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도시의 역사성을 파괴하며, 삭막한 건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좀더 유동적이며 자생적으로 발전하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소수 건축가에 의한 계획에 앞서 그 장소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이미지의 자율적인 질서 전개를 관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디자인은 이를 바탕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시대에 따른 다양한 변화를 수용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2.2. 위반행위의 중요성

20세기를 거치면서 근대건축의 절대적이고 획일적인 공간이 갖는 한계를 경험한 오늘날의 사회는 점차 포스트모더니즘의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또한 전체주의적이던 근대적 사고에서 벗어나 타자로 치부되었던 다양성과 우연성, 상대성, 개인의 일상성, 주변성 등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과 함께 하는 건축적 예로 베르나르 츠뮴(Bernard Tschumi)의 라벨레트 공원 현상설계(1982년)안을 들 수 있다. 이 설계안의 주요 개념은 이벤트(event)와 프로그램(program)⁷⁾이었다. 그는 공간에서 존재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형태적인 공간 자체보다도, 공간 내에서 벌어지는 사람들의 행위(activity)와 이벤트(event)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어떤 특정 방과 공간이 특정용도로 사용되도록 계획하지 않았다. 한 공간이 시간에 따라 여러 다른 용도의 프로그램이 번갈아가며 점유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고, 장소를 사용하는

2)1988년 제17회 트리엔날레 전시회 서울전시관 소주계 서울성

3)트 코르뷔제와 그의 제자들이 계획한 도시들은-브라질리아, 상디갈-거대스케일을 가진 직선적이고 질서정연한 도시공간이었다. 이 근대적 계획도시들은 가변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활기를 담기에 부족했고,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콜린 로우(Colin Rowe)는 Fred Koetter와 공저로 출판한 COLLAGE CITY (The MIT press 1966) 에서 ‘근대도시는 아직 건설되어 있지 않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근대건축의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했으며 오히려 이탈리아와 같은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도시들이 매력적이라고 느끼게 하였다. 아이다 다케후미, 도시디자인의 계보, 1판, 발인 p.183

5)아이다 다케후미, 도시디자인의 계보, 발인 pp.190-191

6)자신이 내적 본질이 화폐중심주의 와 교환가치로 환원됨으로써 인간성이 상실되었다...유희진, 산업자본주의시대 건축에 있어 인간성 상실과 회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석사논문, 2001년 p.65

7)Bernard Tschumi, EVENT-CITIES, The MIT press, 1994

방법, 즉 우연한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행위와 운동이 공간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오늘날 현대 도시에서 전근대적인 형태로 남아있는 재래시장은 베르나르 츠미(Bernard Tschumi)가 주목하는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공간이다. 재래시장 내에서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 사람들의 자율적인 위반행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래시장은 같은 길을 가더라도 사람들의 행위가 제각각으로 구현되어 모습이 고정적이지 않은 상대적인 공간⁸⁾이며, 다양성과 차이가 존중된다. 또한 재래시장에서 행동주체들의 자유로운 위반행위들이 서로 마찰을 빚으면서 복합적인 사건⁹⁾들이 일어나고, 위반행위들 사이의 조절 규칙이 생기게 되었다. 위반행위로 인해 다양한 환경이 조성되는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가로(街路)에서는 오전, 오후 번갈아 가며 서로 다른 노점점포가 외부공간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 가로(街路)는 단순한 통행의 기능을 넘어서서 노점점포, 보행자, 호객꾼, 짐꾼, 차량, 오토바이 등의 행위와 이벤트를 수용하는 선형 광장이자 오픈스페이스로서 역할 한다. 이와 같이 위반행위가 허용됨으로써 재래시장은 예기치 않은 새로운 이벤트가 일어나는 활기찬 공간이 되었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 공간의 사용주체와 사용방법이 바뀌면서 공간의 다양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기존의 근대적 판매 공간과 재래시장을 비교해 보면 재래시장은 자유로운 공간이며 위반행위 자체가 시장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백화점 매장은 잘 정돈되어 있으며, 훈련되고 조직된 점원들이 판매를 하고 있다. 실내는 멀리 내다볼 수 있을 만큼 시선이 트여 있어 타인을 관찰하기 쉬우며, 또한 스스로도 감시를 느끼는 판옵티콘의 통제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반면 재래시장 공간 내에서의 활동은 백화점 공간과는 달리 자유로우며, 소비자는 옷차림, 구매여부 등으로 인해 시장 내에서 통제받지 않는다. 또한 재래시장의 점포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자유롭다. 점포에 간판이 없거나 간판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자기 점포의 상품을 간판삼아 점포영역 외부로 늘어놓고 가로(街路)공간을 사유화하는 위반행위를 한다.

이와 같이 재래시장에서 위반행위들이 얽혀서 발생하는 고밀도의 상황들은 역설적이게도 시장의 활기를 주도하고 있으며, 위반행위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시장 공간 자체를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반행위는 미셸 드 쉐르토(Michel

De Certeau)가 언급한 '보행발화'¹⁰⁾라고 볼 수 있다. 재래시장 내에서 위반행위는 보행발화와 같이 '일상생활의 창조적 실천'을 실현시키면서, 구축된 질서가 규정하는 한계를 넘어선다. 또한 시장 내, 외의 공간 활용은 계획된 공권력에 의해 조절되기 보다는, 시장을 점거하고 위반행위(점유, 판매, 통행 등)를 일으키는 불특정 다수 사용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절된다.

따라서 재래시장 내에서 위반행위는 시장공간 구성요소 그 자체임과 동시에 시장공간의 다양성을 발전시키며, 시장조직의 자율성과 자생력을 획득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동인임을 알 수 있다.

3. 남대문 재래시장의 위반행위

3.1. 남대문시장의 자생적 공간변화

(1) 공간적, 시간적 한계의 극복

남대문 시장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보기 드문 시장이다. 순간순간마다 포착되는 모습이 가변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두고 복잡적이고 비 형태적인 흐름, 소리, 에너지라고 말한다. 전근대적인 공간으로 남아있는 남대문 시장이 서울의 도시공간 속에서 어떻게 이처럼 생명력을 갖고 적응, 발전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남대문시장¹¹⁾은 약590년의 역사를 가진 국내 최대의 재래시장이다. 6.25전란 후에 미군군수품이 이 곳으로 몰래 유출되어 판매되면서 남대문시장은 도깨비 시장으로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이처럼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상행위를 위해 남대문시장에서는 깊은 야간에 개장하기 시작 했고 이것이 새벽시장의 시초가 되었다. 야간 통행금지(1945.9.9-1982.1.1)가 있던 그 시기 야간 상행위 자체는 그것 자체가 위법행위였으므로 본격적인 새벽시장의 활성화는 1982년 통행금지 해제 이후에 이루어졌다. 1980년대에는 상품이 부족하여 남보다 빨리 필요한 물건을 치열하게 확보해야 했다. 물건을 떼어가는 소매상인들은 보다 이른 새벽시장에 와야 더 싸고 좋은 물건을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새벽시장을 찾았고, 상가들은 이에 맞추어 개장시간을 앞당기면서 새벽시장은 자연스럽게 정착하게 되었다. 지방상인은 새벽의 틈새시간을 이용하여, 상품과 떨어져 있는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시간대에 따라 시장의 한 공간을 다양한 프로그램이 번갈아 사용하면서 밀도 높은 재래시장은 공

8)절대적인 공간에 대한 회의를 제기하였던 베르그송(Bergson)과 그의 뒤를 이은 들뢰즈는 시간과 공간의 절대성을 부정하였다. 현실 물체의 움직임의 궤적은 반복되어도 이전의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공간 속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장하는 상대적인 공간과, 찰나적이고 우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9)포스트모더니즘의 논리적 실천자였던 로버트 벤츄리(Robert Venturi)는 사람이 사는 곳은 불확정한 요소로 가득 차게 마련이며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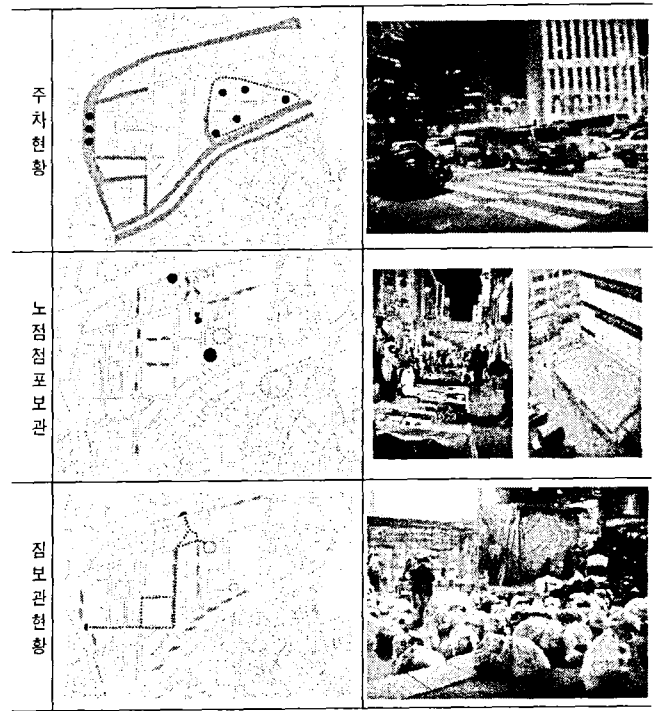
10)걷기는 말하기 행위로 간주된다. 걷기는 도시계획의 전체주의와는 다른 지방 권력이 되고, 이를 통해 공간에 얽힌 잊혀진 기억과 의미들을 살림으로써 황량한 도시에서 살아갈 의미공간을 창출한다. 나아가 걷기는 원초적 경험을 재생하여 움직이는 도시, 은유적인 도시를 만들어 간다. 결국 공간을 창출하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적 걷기 실천이라는 것이다. 문화, 일상, 대중, 2판, 한나래, 1996년, p.132

11)1964년 남대문시장 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현재의 시장은 정식 허가를 받아 현재의 남대문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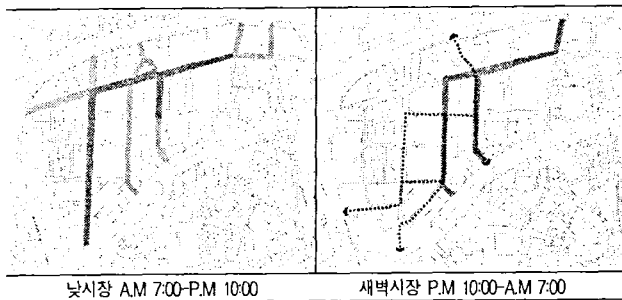
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2) 외부공간의 내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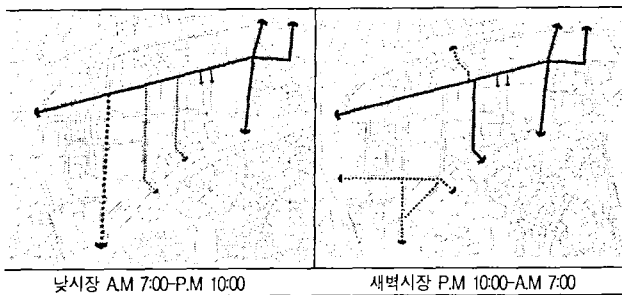
재래시장 내에는 계획된(plan)영역과 비계획(unplan)된 영역 혼재하고 있고, 재래시장은 성격상 그 둘 사이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재래시장이 도시공간에 있지만 상품의 유통과정과 시장 내의 환경을 보면 전근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래시장은 근대적인 콘크리트 건물과 건물에 걸쳐 형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도시공간에서 무엇이 자생적인 재래시장을 형성하는 것일까. 재래시장은 건물내부 뿐 아니라 건물 외부를 전반적으로 포함하여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공간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장 내에 큰 도로와 작은 도로가 있지만 3m-8m정도의 넓지 않은 도로를 중심으로 내부시장의 성격이 외부공간을 점유하고 있었다. 시장에서 이런 외부공간의 내부화는 그 자체가 시장이기 때문에 허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장이 활성화 되는 시각에는 시장 내에서 지게, 수레와 오토바이 외의 근대적인 운송수단(자동차, 트럭 등)의 통행은 시장 주변부의 넓은 도로를 순환하도록 조절된다. 이처럼 넓지 않은 도로를 내부 공간처럼 사용하고 점유하는 위반행위를 거치면서 시장은 더욱 활성화 되고 시장영역은 더욱 긴밀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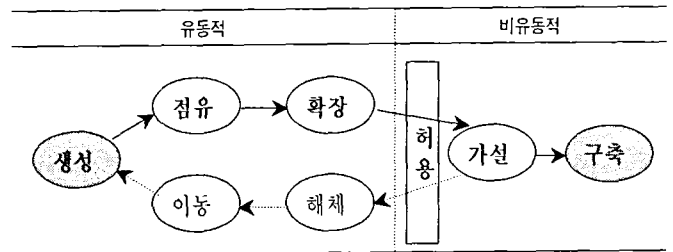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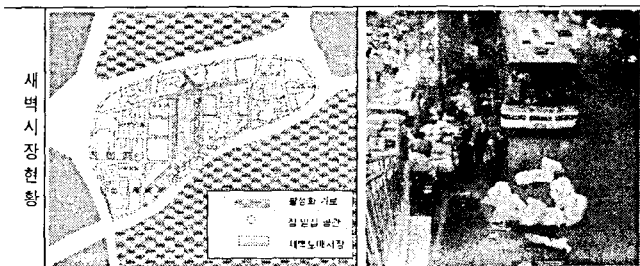
<그림 3> 새벽시장 현황 P.M10:00-AM5:00



<그림 1> 주보행로 현황



<그림 2> 시장내부 교통 현황 (실선 차량, 점선 오토바이, 수레)



<그림 4> 위반행위의 전개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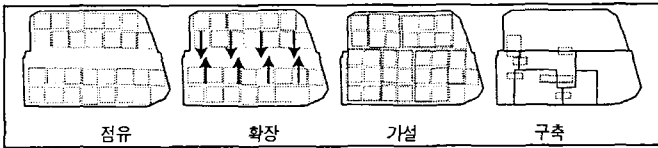
3.2. 위반행위의 형성과 특징

(1) 남대문 시장 내 F동 상가 블록 형성과정

남대문재래시장의 F동 블록 건축은 여러 개의 건물이 맞붙어 있는 형태로 1960-70년대에 화재, 신축, 개축, 증축, 대수선 과정을 거치면서 건물들이 중첩, 연결되어 하나의 건물군이 되었다. 이 건물군은 서로 다른 시기에 지어진 건물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 건축의 시간성, 전개과정을 읽을 수 있고, 그 속에서 다양한 위반행위를 허용하는 건축적 요소를 찾을 수 있다.

우선 위반행위가 생성⇒점유⇒확장⇒가설⇒구축의 단계에 따라 형성된다고 본다. 위반행위는 가설단계에서 다수의 동의에 의해 타당성을 얻게 되면, 가설단계에서 건축적으로 구축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또다시 생성⇒점유⇒확장⇒가설⇒구축의 과정이 반복되며 그 장이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가설의 단계에서 위반행위가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하면 일시적으로 생성되었다가 사라지는 것이 반복하는 전술(tactic)이 형성된다. 이 때 위반행위는 가설단계 후 해체되고

이전의 상태로 이동한다. 즉, 생성⇒점유⇒확장⇒가설⇒구축⇒해체⇒이동의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다.



<그림 5> F동 상가 블록의 점유⇒확장⇒가설⇒구축

그러나 근시한 적으로 봤을 때는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하던 위반행위도 그것이 오랜 시간 (10년 이상) 지속되면 시장 내에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사항을 앞으로 언급할 건축적인 예에서 찾아보도록 한다.

현재는 한 블록인 F동 상가의 대지는 처음에 길을 사이에 두고 두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어물전이었다고 한다. 점포들은 점차 길을 침범하고 영역을 확장하고 길을 사유화하였다. 어물전에서 의류판매로 업종이 바뀌면서 점차 반 유통적인 가설건축물이 들어서게 된다. 이 가설건축물들은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3층-8층으로 된 6개의 건물들로 각각 구축되었다.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점차 건물사이의 벽을 트고 건물을 이으면서, 현재와 같이 커다란 하나의 건물군을 이루게 되었다.

(2) 자생적으로 형성된 건축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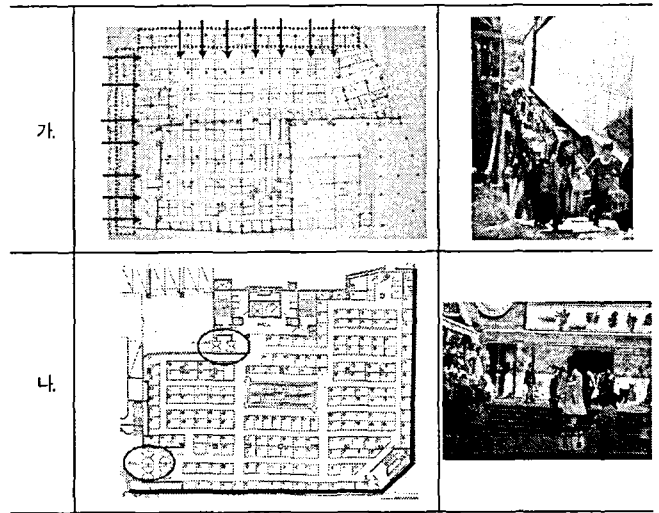
F동 상가는 상행위를 위해 일시적으로 점유하던 공간을 사유화하고 확장하여 건축한 자생적인 건물이자 위반행위로 인해 지어진 건물이다. 이러한 건축은 현대의 근대적인 건축과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일까. 이 둘 사이의 차이와 위반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건축적 특징을 알기 위해, F동 상가와 그 맞은편에 위치한 삼익패션타운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림 6> F동 상가군과 삼익패션타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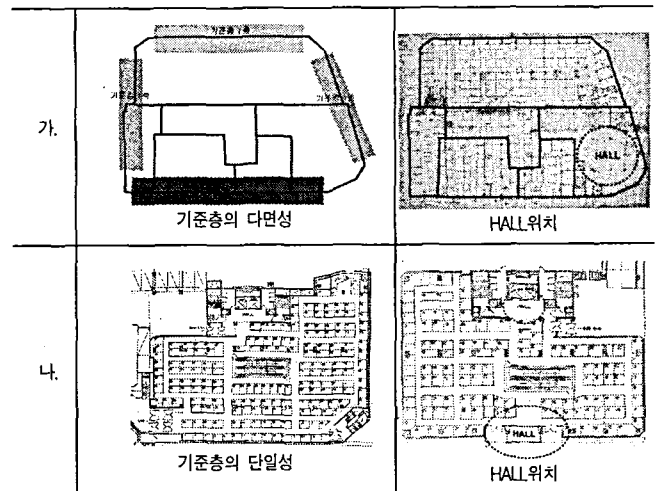
삼익패션타운은 80년대 중반에 지어진 건축물로 기존의 재래시장을 재개발하여 신축한 것이다. 재래시장의 성격을 평면적으로 유사하게 수용하고 있지만, F동건물과는 건축적인 구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두 건축물은 건축물과 길과의 접근성에 있어서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림 7> 가 : F동 상가 블록 1층 평면, 나 : 삼익패션타운 1층 평면

각 상가의 1층 평면도를 비교해 보면, F동 상가의 경우는 4.8m에서 7m간격으로 무수히 많은 출입구가 나 있어 길과 건물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길과 건물이 따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에 반해 삼익패션타운 주출입, 부출입이 하나씩 위치하고 있고 길이나 재래시장 주변 환경에 대해 매우 폐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F동상가의 경우는 무수히 많은 출입구 밖으로 판매를 위한 상품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간판의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의 발길을 이끈다. 반면 삼익패션타운은 선전하는 사람을 기용해 손님을 건물 내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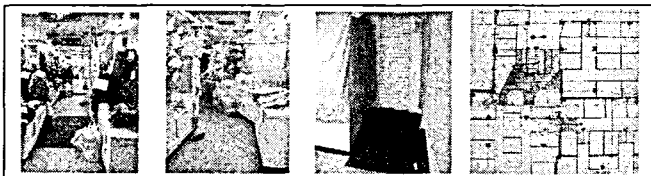


<그림 8> 가 : F동 상가 블록 나 : 삼익패션타운

F동 상가는 각 면이 다양한 레벨에 면하고 있으며, 각 면의 기준층에서 일어나는 판매양상은 다르다. 주변 환경, 도로, 소로, 골목에 면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와 소통(사유화,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익패션타운은 그 내부의 판매행위가 외부와 관계 맺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레벨에 면하지만 동일한

품목을 판매하고 있으며, 획일화된 판매양식을 보이고 있다.

낮 시간(P.M 12:00-P.M 5:00)에 재래시장의 외부공간은 보행자, 통행차량, 판매대 등으로 가득 차게 되며 특히 노점점포들은 1m 정도의 좁은 통로를 형성하며 가득 차게 된다. 밀도 높은 재래시장의 외부 공간에서 설 만한 오픈스페이스는 쉽게 찾을 수 없다. 외부 가로와 접한 재래시장 건물 내부의 홀(hall)이 오픈스페이스로 활용되고 있을 거라 예상하여 그 곳의 사용빈도를 관찰하였다. 뜻밖에도 F동 상가에는 이런 홀(hall)이 존재하지 않았다. 리모델링된 대도은남상가만 홀(hall)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반해 삼익패션타운은 주출입부에 홀(hall)을 가지고 있었다. 현대화된 건물들만 홀(hall)을 가지고 있었고, 이 홀(hall)들은 재래시장과 인접함에도 불구하고 머무는 사람이 드물었다. 이 사실을 통해 근대적인 건축물의 설계가 이 장소에서도 실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대문시장의 장소적 특성은 활성화된 가로(街路)이다. 위에서 언급한 홀들은 이 가로(街路)와 단 차이를 두고 실내 깊숙이(1m-2m)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은 것이다. 객관적인 원칙만을 따른 설계에 앞서 그 장소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우선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9> F동 상가 건물 간 연결 램프, 통로와 미로적인 내부 공간

4. 결론

근대도시공간 속에서 다양성과 자생성을 획득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재래시장의 유동적인 현황을 분석하게 되었다. 재래시장에서 활력을 주는 요소를 위반행위로 보고 그 특성을 찾아보았다. 시장은 전근대적인 재래시장 도로조건 등을 손수레, 오토바이 등을 통해 극복하여,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주변 환경 조건이 변하는 시간적 틈을 이용하여 상행위를 하였고, 시간대에 따라 도로 조건에 맞는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기존의 도시체제를 유지하고, 자율적으로 조절되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는 기존 시장 환경에 대한 상호적 대응, 유연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시장공간이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위반행위를 보장해주는 환경이 시장 내에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시장은 근대적 운송수단이 접근하기 어려운¹²⁾ 가로(街路)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전근대적인 시장영역을 끈고히 할 수 있

었다. 또한 이처럼 넓지 않은 도로와 외부 공간 자체를 내부공간처럼 사유화하고 점유하는 다수의 주체들로 인해 위반행위는 허용되었고, 시장은 다양한 전술(tactic)을 통해 자율적으로 조절되었다. 건축에 있어서는 60년대 지어진 노후 된 건물(F동 건물군)들이 증축되고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커다란 크리스트를 이루면서 그때그때의 시대상황에 맞게 적응하고 유지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 같이 자생적으로 변천하며 형성된 건물은 주변 환경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 홀(hall)과 중심적인 출입구 없이도 그 건축물은 다수의 열린 출입구를 통해 외부와 소통하고 있다. 남대문 재래시장의 유동적 흐름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한편 건물 내부의 것들을 펼쳐내어 놓는 피드백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내, 외부의 경계를 없애는 위반행위는 삼익패션타운의 인위적인 광고가 없어도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들이고 활기차게 만든다.

무미건조한 현대 도시환경이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도시 계획에 앞서, 재래시장 내의 위반행위와 같은 그 장소만이 가지고 있는 기존 질서와 패턴을 찾아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정승모, 시장의 사회사, 웅진, 1992년
2. 아이다 다케후미, 도시디자인의 계보, 발언 2002년, pp.162-167, pp.182-193
3. 정승일, 패션벨리 남, 동대문시장, 경춘사, 2000년
4. 장수미, 서울생활의 재발견, 현실문화연구, 2003년
5. 강내희, 공간, 육체, 권력 문화과학사, 1995년
6. 임석재, 현대 건축과 뉴 휴머니즘,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년, p.225, p.227
7. 봉일범, 도시:사건과 구조, 시공문화사, 2002
8. 스기모토 도시마사, 건축의 현대사상, 발언, 1998년
9. 김상진·최양선·송주은·전윤희, 대박터지는 시장으로 간다, 청년사, 2000년
10. 박영진 외 7인, 제2판, 문화, 일상, 대중 한나래, 2000년
11. 김성우, 건축형태와 시장영역의 상호관계를 통해 본 재래시장의 거대 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석논, 1998년
12. 유희진, 산업자본주의시대 건축에 있어 인간성 상실과 회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석논, 2001년
13. 안건혁·김주일, 서울도심 재래의류시장 재편과정 연구, 대한민국도·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6권 2호 2001년 4월
14. 인터뷰 남대문주식회사 백승학 기획실장님
15. 인터뷰 대도마켓운영회 원영환 상무님

12) 3m-8m에 폭의 넓지 않은 도로거나 넓은 도로지만 이미 대부분의 공간이 점거되어 통행을 막는다.